

2020년 5월 21일

교구의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조치 (제 8 차)

+ 주님의 평화

아시다시피 이전 발표되었던 비상사태 선언은 14일 와카야마현 오늘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5월 31일(일) 성령 강림 미사 (포함 전 저녁 미사)에서 공개 미사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각 본당과 기관에 의해 시행이 무리인 경우는 책임자가 재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하에 있는 교회에서 모임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향후의 교회 활동에서의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십시오.

3. 이미 발표한 5월 · 6월의 회의와 행사의 취소에 관해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경우 다시 알려드립니다.

* 주요 외국어판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하에있는 교회에서 모임에 대한 지침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사제 수도자 · 평신도가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의 보급 등에 의한 종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회 모두가 모이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자숙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일본 사회 전체의 새로운 생활 양식에 발맞추어 교회도 함께 걸어갑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상사태 선언의 해제 됨에 따라 관계 자치 단체의 지침이 발표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따르십시오.

본당 · 수도원 · 시설에서 지역 사정 등, 모이는 인원의 규모나 구성 등이 크게 다르기에 각각의 책임자가 사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1. 본당의 사정으로 계속 공개 미사 못하는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의무가 관면됩니다. 또한, 노인, 병자, 지병이 있는 신자들과 그 사람의 간호 및 치료에 해당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관면됩니다.
2. 본래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본당의 책임으로 미사에 오는 인원을 조정하거나 미사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냉담자와 주위의 신자들에게 전해주시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기도로 봉헌해주십시오.
3. 이런 점에 있어서 주일 미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미사가 여러 번 있는 본당에는 지구별로 어떤 미사에 참석할지를 지정합니다.
 - ② 본당의 지구별이나 이름의 성에 의한 분류 등에 따라 그달의 어떤 주일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③ 미사 시간을 공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경우, 지역 등의 제한된 그룹의 신자들에게만 미사 시간을 알립니다.
 - ④ 교회에서는 계절과 날씨의 상황에 따라 야외 미사도 가능합니다.

⑤ 또한, 주일 미사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평일에 올 수 있는 신자들은 주일을 피해 평일에 올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4. 각 본당의 성전은 미사 및 기타 전례나 장례, 묵주기도 등의 기도 모임과 같은 공적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개방됩니다. 다른 시간대에 개방 여부는 각 본당 책임자への 판단에 맡깁니다.

5. 다음 미사에 모이는 경우를 상정한 기준입니다

① 개개인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취하도록 배려하십시오. 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할 수 있기에, 그 인원수를 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본당의 지역마다 미사 시간이나 미사 참여 날짜를 한정)으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모여 참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② 회중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③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지품 외에는 손대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수대를 사용하지 않고, 출입구의 문을 개방해두고, 교회 비품이나 성가책과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주일의 「성경과 전례」는 각자가 취하지 않고, 지정된 인원이 배부하거나, 미리 자리에 두고 예식 후에 수거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④ 입구 부근이나 손등의 접촉이 쉬운 곳에는 (리프트 및 난간 등) 근처에 알코올 등의 소독액을 놓으십시오. 모임 후에는 환기, 벤치 등을 소독하십시오.

⑤ 주례자나 봉사자는 꼼꼼하게 손을 세척하거나 알코올로 소독한 후 입당합니다.

봉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서로의 거리를 고려합니다.

⑥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피하십시오. 신자들의 화답에 관해서도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은 피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통해 대표로 대답해야 합니다. 영성체 성가 등은 대표 한 사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⑦ 독서대와 신자석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없는 경우, 사제를 포함 독서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⑧ 봉헌금은 미사 중이 아닌, 각자가 입당 (혹은 퇴장) 시에 헌금함에 넣도록 합니다.

⑨ 공동 기원이 끝나고 감사의 전례를 위해 제단에 접근하기 전에, 주례 사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⑩ 빵과 포도주의 봉헌 (행렬)은 실시하지 않고 제단에 직접 준비합니다.
- ⑪ 평화의 인사는 악수 등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 ⑫ 주례 사제의 영성체가 끝나면 성체 분배 전에 주례 사제 (혹은 성체 봉사자)는 손을 세척하거나 알코올 소독을 합니다. 성체 분배 동안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⑬ 공동 집전의 경우 주례 사자에 의한 성혈의 성찬식은 성체를 포도주에 담그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⑭ 주례 사제가 고령인 경우는 가능한 한 가끔 성체 봉사자들이 신자들에게 성체 분배하도록 하십시오.
- ⑮ 성체를 모시는 신자들은 가능한 한,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하는 때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십시오. 또한 성찬례에 참여시, "2미터 간격 유지" 나 "사제가 신자석으로 가는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 ⑯ 영성체가 아닌 축복의 경우,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상태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 ⑰ 미사 후 출입구가 혼잡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퇴장합니다. 교실 등에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을 함께 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 ⑱ 교회 회보 등의 배포물은 "성경과 전례"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담당자가 전달하거나 좌석에 미리 넣어 두십시오.

6. 다음은 다른 성사에 관한 것입니다.

- ① 세례, 첫영성체, 견진, 혼인 성사는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기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연기하도록 하십시오.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십시오.
- ② 세례의 경우 짧은 형식을 사용, 세례자와 직접 접촉은 가능한 한 피한다. 도유는 세례 받는 사람마다 다른 탈지면이나 면봉을 이용하고 사용 후에 그것을 소각합니다.
- ③ 고해성사는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한, 성사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널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 ④ 견진 성사의 경우는 세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유 시, 각각 다른 탈지면이나 면봉 (사용 후 소각)를 사용합니다. 평화의 인사는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⑤ 혼배성사의 경우, 반지의 수여 등의 경우에는 주례 사제는 소독 한 손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결혼 증명서에 서명이나 서류를 건네 줄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⑥ 병자 성사는 짧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도유에 있어서 각각 다른 탈지면이나 면봉 (사용 후 소각)를 사용합니다. 고령의 성직자는 가능한 한 성사집전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 성사 등의 사목적인 배려를 할 경우,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닌 환자나 요양 시설입소자, 독거노인, 임종을 맞이한 사람에게 사목적인 배려는 서로가 감염의 위험에 주의하면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9. 장례는 기본적으로 주일 미사와 동일한 기준에 따릅니다. 아울러 유족에게 돌도 없는 시간임을 생각하고 최대한의 배려를 합니다.

10. 교회 시설에서 다양한 모임에 대해서는 (AA, GA 등 포함)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책임자가 판단하십시오.

누구나 감염자가 될 가능성, 혹은 이미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도록 합시다.